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ec8ebd0b1fb653ee2c313258742b267e29c73aa5869e5395f25b612a41f9aab4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글로벌 거시지표, 8월 이후 시장 예상치 하회 지속되며 투자자 우려 증

- 미국 재무장관, 연준 파월 의장의 연임을 지지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를 16개월 연속 동결. 시장 예상에 부합
- 주요 투자은행,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 견해를 제시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통화정책과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관심 고조

주가 하락[-0.6%], 달러화 강세[+1.1%],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테이퍼링 관련 시각에 따라 하락 후 낙폭 축소
유로 Stoxx 600 지수는 중국 경기부진 가능성 등으로 1.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0.8%,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배경
독일도 미국과 동일한 이유로 3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0.9% 상승, 한국 CDS 보합

		8/20일	8/13일	전주말대비			8/20일	8/13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441.7	4,468.0	-0.59%	국채 금리 10y	미국	1.26%	1.28%	-2bp
	유럽	468.80	475.83	-1.48%		독일	-0.50%	-0.47%	-3bp
	중국	3,427.3	3,516.3	-2.53%	CDS 5y	한국	18bp	18bp	0bp
	일본	27,013	27,977	-3.45%		중국	35bp	37bp	-2bp
	한국	3,060.5	3,171.3	-3.49%	위험 지표	EMBI+	366	362	4bp
환율	달러지수	93.50	92.52	1.06%		VIX	18.56	15.45	20.13%
	유로화	1.1698	1.1797	-0.84%		WTI유	62.32	68.44	-8.94%
	엔화	109.78	109.59	-0.17%	원자재	구리	413.7	439.2	-5.80%
	위안화	6.5015	6.4774	-0.37%		금	1,781.1	1,779.7	0.08%
	원화	1,179.6	1,169.0	-0.90%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글로벌 거시지표, 8월 이후 시장 예상치 하회 지속되며 투자자 우려 증증

- 주요 경제지표의 예상치와 실제치 간 괴리를 측정하는 Citi의 Surprise Index는 최근 미국과 G10 국가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르게 하락해 마이너스 영역 진입. FT는 델타변이 본격화 이후 미국과 주요국의 거시지표 둔화세가 현저하다고 평가
- 미국은 2주전 소비자신뢰지수에 이어 지난 주 소매판매와 뉴욕, 필라델피아 등 지역 연은들의 제조업 지수들이 잇달아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지난주 중국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도 예상치를 하회
- Citi는 기업실적 재부각 예상. 반면 Nationwide Investment는 시장 포커스가 경제활동 재개, 재정·통화 부양책, 기업이악→테이퍼링, 바이러스 재확산 및 공급망 병목, 중국 경기둔화로 이동(The tone of investor focus has shifted)하고 있다고 진단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연준 파월 의장의 연임을 지지

- 옐런 재무장관은 백악관 보좌관에 해당 의견을 피력. 바이든 대통령은 9월 경에 연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의 신뢰를 위해 연임의 필요성을 주장.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2년 2월 만료 예정

■ 조사업체 Lipper, 지난 주 미국 주식형 펀드 유입액은 2개월 만에 최대 수준

- 지난 주에 유입된 금액은 132.8억달러로 그 전주의 24억달러에서 큰 폭 증가. 이는 양호한 기업실적 기대와 경제회복 전망 등에 기인. 채권형 펀드에도 60.7억달러 유입되었으나, 이는 그 전주에 비해 25% 감소한 수준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를 16개월 연속 동결. 시장 예상에 부합

-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및 5년 만기 LPR을 각각 3.85%, 4.65%로 유지. 전문가들은 당국이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을 제공할것지만 자산버블을 초래할 정도의 공급은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ANZ의 Xing Zhaopeng는 인민은행이 금년 4/4분기와 내년 1/4분기 각각 0.25%의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 미국 상장 추진하는 자국기업에 데이터의 외부 위탁 의무화를 검토

- 당국은 정부 소유의 기업(third party firm)이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데이터 관리 및 해외 전송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는 민간기업 규제의 일환. 다만 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

■ 미국 서머스 전 재무장관, 중국 금융시장의 위험도는 상승

- 해당 시장에서 놀라우면서도 부정적인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산당의 민간기업에 대한 영향력 강화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 이에 대해 위험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라고 지적

■ 주요 투자은행,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 견해를 제시

- 골드만 삭스, Bank of America 등은 신흥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으며 향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 회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진단. 러시아, 브라질, 동유럽 등을 유망 국가로 지목

■ 유로달러 선물시장, 연말 달러화 수요 증가 가능성을 시사

- Refinitiv, 유로달러 선물의 2021년 12월물 미결제 약정이 115.4만개로 2011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 Reynolds Strategy의 Brian Reynolds은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투자자들이 연말 달러화 자금 조달 증가 가능성을 대비한 결과라고 평가

■ 브라질 경제장관,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

- 파울로 게데스 장관은 해당 이유로 2022년 예산적자 축소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 정치적 갈등은 이해되지만 향후 경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20 현지시각 기준)

- 캐나다 6월 소매매출(전월비): 4.2%, 5월(-2.1%), 예상치(4.4%)

■ 주요 경제 이벤트(8/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7월 기존주택판매
- 미국·유로존·영국 8월 마켓 종합 PMI, 유로존 8월 소비자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테이퍼링, 금리상승과 주가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 -WSJ

(What We Still Don't Know About the Fed's Bond-Buying Spree)

- 연준 테이퍼링이 채권금리 상승으로 연결되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지난 30년간 주식(S&P 500)과 채권수익률(미국채 10년물)의 상관관계 조사에서 채권금리와 주식은 양의 관계를 시현
- 하지만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와 저성장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테이퍼링은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이에 채권금리 상승 시 성장에 무게를 두었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 등 적절한 대응이 요구

■ 중국 규제강화의 지속 여부, 향후 경제 여건 등에 좌우될 가능성 - 블룸버그

(Will China's Cloudy Outlook Slow Its Regulatory Crackdown?)

- 중국 정부는 IT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규제 강화 및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기업과 가계 전반의 소득과 분배의 재조정 의지를 피력. 당국은 이러한 노력이 안정적 경제성장과 금융위기 방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가통계국의 7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수출입 통계 등은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 이에 일부에서는 성장 둔화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강화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의구심 피력
- 성장 둔화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분배보다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기술과 적절한 규제, 금융 서비스 개선 등으로 불평등 해소에 도움 - Financial Times

(Technology can help democratise financial service)

■ 일본 추가 경기부양안에 따른 과잉부채 우려, 장기금리 큰 폭 상승 전까지 안전 - WSJ

(Japan's Love of Debt Offers a View of U.S. Future)

■ 대만 정부, 중국 안보위협에 대한 대내적인 대응방안 제고가 필요 - Financial Times

(Taiwanese Shrug Off China Threat and Place Their Trust in 'Daddy America')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